

지역

평창군시설공단 임직원 음주운전 ‘제로’

유학렬 기자 hyyoo@kwnews.co.kr

입력 : 2025-07-23 23:00:00 수정 : 2025-07-23 14:14:54 지면 : 2025-07-23 (15면)

최근 5년간 운전경력증명서 자체 점검 결과



【평창】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들어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최근 5년간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점검 실시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지방공공기관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도입 권고'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지침 개정에 따른 결과다.

최순철 이사장은 “향후 신규 채용때 1회, 재직자 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 추천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